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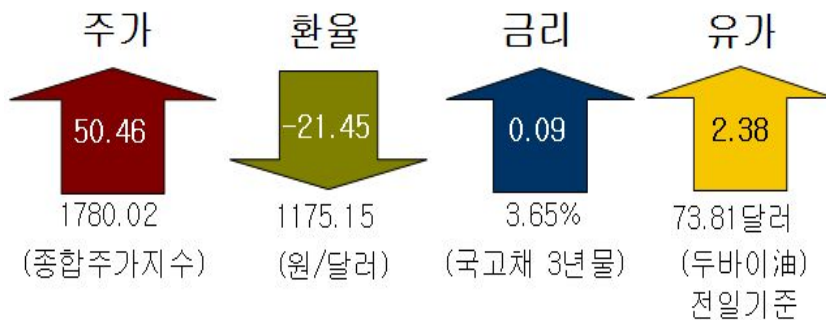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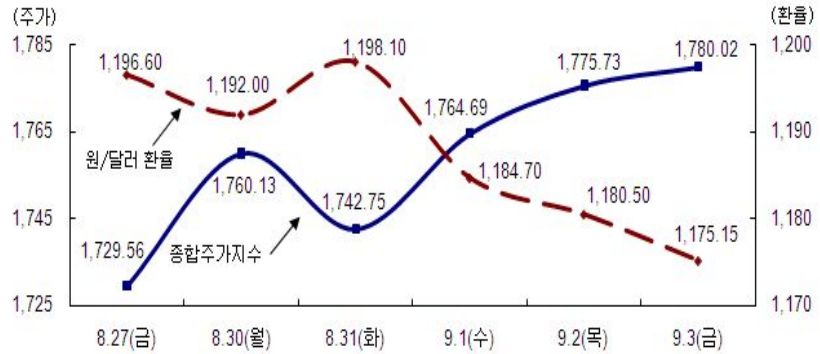
10-33(통권 413호)
2010.9.3



- 여성 경제활동의 현재와 미래
-여성 고용 증가를 위한 바람직한 경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30~9.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여성 경제활동의 현재와 미래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조 호 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 전 선 형 연구원 (2072-6214, shje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여성 경제활동의 현재와 미래 - 여성 고용 증가를 위한 바람직한 경로

■ 최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최근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학교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2009년 사이 8.2%p 증가하여 타 학력대비 증가 속도가 빨랐다. 남·녀 임금격차도 축소되었다. 고학력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 임금수준이 향상되면서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 수준이 1990년 53.2%에서 2009년 67.3%로 임금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전문·기술·행정 관리직의 여성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10년('00~'08년) 동안 전문·기술·행정 관리직에서 여성의 취업 비중이 6.7%p 상승하였다.

■ 국내 여성 경제활동의 구조적 특징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구조적 특징들은 여전하다. 첫째,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09년 53.9%로 독일 등 보수주의 중부유럽 국가의 30년 전 수준이며, OECD 평균인 61.5%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둘째, 남·녀 간 고용률 격차도 여전히 크다. 성별 고용률 격차가 '00년 23.7%에서 '09년 22.4%p로 10년 동안 약 1.3%p 감소하는데 그쳤다. 셋째,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는 M자형 커브로 29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30~40대에 최저점으로 하락한다. 이는 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출산과 육아 이후에도 유지되는 역U자 형태인 것과 대비된다. 넷째, 출산·육아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남성의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중은 60% 이후 급증하는 반면, 여성은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30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여성 고용 증가를 위한 발전 경로

(여성 고용의 유연·안정성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은 OECD 평균 대비 유연성, 안정성, 고용률이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미국과 덴마크의 여성고용은 유연성은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안정성과 고용률이 높았고, 영국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독일, 일본, 네덜란드는 유연성은 높지만, 안정성은 평균보다 낮은 국가들로 분류되었다.

(바람직한 경로 제안)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국내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1단계로 파트타임 고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여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여성의 풀타임 고용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함께 높이는데 있어 유연성이 높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려줌으로써 여성 고용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2단계로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 정규직 고용을 증대시켜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 고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정책과제) 이를 위해 첫째, 여성의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를 공공부문에서 정착시키고 민간부문에 확대해야 한다. 1980년 네덜란드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 보다 낮았지만, 파트타임 고용제 확산으로 2009년 현재 73.5%로 한국보다 19.6%p 높은 수준으로 제고되었다. 둘째, 출산 후 경력단절 현상 완화와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해 직장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덴마크에서는 영아를 위한 공공보육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남녀 모두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및 처우에 있어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강화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1986년 고용형평법(EEA)과 임금형평법(PEA) 도입으로 여성 고용의 차별금지를 제도화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80년 57.4%에서 '09년 74.4%로 크게 개선하였다.

< 여성 경제활동의 현재와 미래 >

최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최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빠르게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졸 이상 여성은 '90년에 비해 '09년에 8.2%p로 가장 빠르게 증가 · 초졸, 중졸 이하의 저학력 여성은 -14.2%p, -1.4%p로 감소 - 남·녀 임금격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 수준이 '90년 53.2%에서 '09년 67.3%로 14.1%p 증가 - 전문·기술·행정 관리직의 여성 진출이 크게 확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 간 전문·기술·행정 관리자의 여성 취업 비중이 6.7%p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국내 여성 경제활동의 구조적 특징	
구조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참가율이 '09년 53.9%로 독일, 프랑스 등 보수주의 중부유럽 국가들의 30년 전 수준 · '09년 여성 고용률도 52.2%로 OECD 국가 최저수준임 -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여전히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고용률 격차가 10년 동안 약 1.3%p 감소하는데 그침 -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여성 고용률 추이는 30~34세를 최저점으로 하는 M자 커브 형태 - 출산·육아 이후 복귀하는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일용직 비중이 남성은 60세 이후 급증하는 반면 여성은 30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여성 고용 증가를 위한 바람직한 경로	
바람직한 경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유연성 제고를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리고 이후 풀타임, 파트타임 고용의 안정성 높이기 위해 정규직을 확대 하는 단계적 발전 방안이 필요 · 여성 고용의 유연성, 안정성, 고용률 저조 ⇒ 1단계 : 유연성 ↑ 고용률 ↑ ⇒ 2단계 : 안정성 ↑, 고용률 ↑ ⇒ 유연성·안정성, 고용률 향상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여성의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를 정착 및 확대 - 둘째,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 확충, 다양 보육서비스 확대 - 셋째,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 금지를 법적·실질적으로 강화

1. 최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 대학교졸 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

- 전문대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던 대학교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그 차이를 줄임
- 대학교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에 비해 2009년에 8.2%p 증가하며 최근 2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
- 중졸 이하 저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초졸 이하가 -14.2%p, 중졸이 -1.4%p로 감소하는 추세임

<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 %p)

	1990년(A)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B)	증감(B-A)
초졸 이하	50.4	47.1	44.6	38.8	36.2	-14.2
중졸	38.2	40.7	42.2	40.8	36.8	-1.4
고졸	47.5	50.2	49.5	53.2	51.6	4.1
전문대졸	66.2	63.6	64.6	67.3	65.5	-0.7
대학교졸 이상	53.1	57.9	58.1	60.2	61.3	8.2
전체	47.0	48.4	48.6	50.0	49.0	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구직기간 1주 기준임.

○ 축소되고 있는 남·녀 임금격차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여성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면서 남·녀 임금격차가 크게 감소
-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 수준은 1990년 53.2%로 남성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었지만, 2009년 67.3%로 14.1%p 증가하며 임금격차는 줄어들음
- 특히, 2009년 현재 20대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은 남성의 93.3%로 거의 동일한 수준임
- 30대와 60대 여성의 남성 대비 급여 수준은 각각 1990년에 58.7%와 42.8%에서 2009년 77.4%와 65.1%로 18.7%p, 22.3%p만큼 매우 크게 증가

< 연령별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 수준 >

(%, %p)

	1990년(A)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B)	증감(B-A)
계	53.2	60.5	66.0	66.3	67.3	14.1
20대	79.2	83.9	91.7	95.3	93.3	14.1
30대	58.7	68.0	73.6	74.0	77.4	18.7
40대	45.8	50.9	54.9	54.9	56.3	10.5
50대	44.3	51.5	54.5	53.8	55.7	11.4
60대 이상	42.8	51.7	67.2	65.6	65.1	22.3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전문·기술·행정 관리직의 여성 진출이 크게 확대

- 전문·기술·행정 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이 크게 높아진 반면, 기능 관련직은 여전히 미흡하여 성별 직종분리가 직업별로 차별화되고 있음
- 최근 10년 동안 전문·기술·행정 관리자 등 높은 지위의 고소득 직종으로의 여성 취업 비중이 6.7%p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전통적으로 여성 취업 비중이 높았던 서비스·판매 종사직의 여성 고용 비중도 대체로 유지됨
- 반면, 기술·제조 관련 직종은 남성 취업자의 비중이 70~80% 대로 여전히 높고 여성 고용 비중도 감소하고 있어 여성들의 이 분야로의 진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직업별 남녀 취업자 비중 추이 >

(%, %p)

	남자				여자			
	2000 (A)	2004	2008 (B)	증감 (B-A)	2000 (A)	2004	2008 (B)	증감 ((B-A)
전문·기술·행정 관리자	68.9	65.8	62.2	-6.7	31.1	34.2	37.7	6.7
사무 종사자	48.8	50.4	49.6	0.7	51.2	49.6	50.5	-0.7
서비스·판매종사자	38.8	38.0	38.4	-0.5	61.2	62.0	61.6	0.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3.5	55.1	56.1	2.7	46.5	44.9	43.9	-2.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6.8	82.7	84.7	7.9	23.2	17.3	15.3	-7.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6.7	86.1	87.3	0.6	13.3	13.9	12.7	-0.6
단순노무 종사자	53.3	52.3	52.0	-1.3	46.7	47.7	48.0	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국내 여성 경제활동의 구조적 특징

○ 전체 여성 경제활동은 독일, 프랑스 등 보수주의 중부유럽 국가의 30년 전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준임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현재 53.9%로 30년 전인 1980년 독일의 51.9%, 프랑스의 55.1% 수준에 불과
-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9년 현재 10,449천 명으로 남성의 5,309천 명의 약 2배 수준이며, 1998년 62만 명, 2003년 24.7만 명, 2009년 19.5만 명이 증가하여 경제위기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큰 폭으로 상승

< OECD 주요국의 여성(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스웨덴	75.4	79.4	82.5	77.2	76.4	77.7	76.4
	노르웨이	62.2	67.8	70.7	72.1	76.5	75.4	76.5
	덴마크	-	74.6	77.6	73.3	75.9	75.9	77.3
	핀란드	69.4	73.2	73.4	69.5	72.1	72.9	73.5
보수주의적 중부유럽	네덜란드	36.1	40.9	53.1	59.1	65.3	68.6	73.5
	독일	51.9	51.3	56.9	61.1	63.3	66.9	70.4
	프랑스	55.1	55.6	57.2	59.9	61.7	64.3	66.2
	이탈리아	38.4	40.2	44.0	42.3	46.3	50.4	51.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캐나다	57.4	63.0	68.4	67.8	70.4	73.1	74.4
	영국	-	62.4	67.3	67.1	68.9	69.7	70.2
	미국	59.9	64.1	67.8	69.7	70.7	69.2	69.0
	호주	52.0	54.3	61.8	64.2	65.4	68.2	70.1
한 국		46.3	45.2	49.9	51.4	52.0	54.5	53.9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 주: 1) OECD와 비교하기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식의 분모를 15-64세 인구로 조정.
 2)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국가 분류는 송호근·홍경준(2006)을 참고함

-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최저 수준임
- 2009년 국내 여성 고용률은 52.2%로 OECD 평균인 56.7%보다 4.5%p 낮음
- OECD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가 73.1%,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각각 69.1%와 70.6%로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52.2%로 약 15%p 이상의 큰 격차를 보임

< OECD 주요국의 여성(15~64세) 고용률 비교 >

(%)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한국	OECD 평균
63.4	69.1	65.2	70.6	73.1	52.2	56.7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주1: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주2: 2009년 기준임.

○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여전히 큼

- 여성 고용률이 약간 증가했지만,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큼¹⁾
- 국내 여성 고용률은 1982년 42.3%에서 2009년 47.7%로 약 30년 동안 5.4%p의 미미한 증가세를 보임
- 남·녀간 고용률 격차도 2000년에 23.7%p에서 2009년 22.4%p로 약 1.3%p 감소하는데 그쳐 최근 10년 동안 성별 고용 수준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격차도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남

< 성별 국내 고용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1: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 × 100.

주2: 구직기간 1주 기준임.

○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M자 커브)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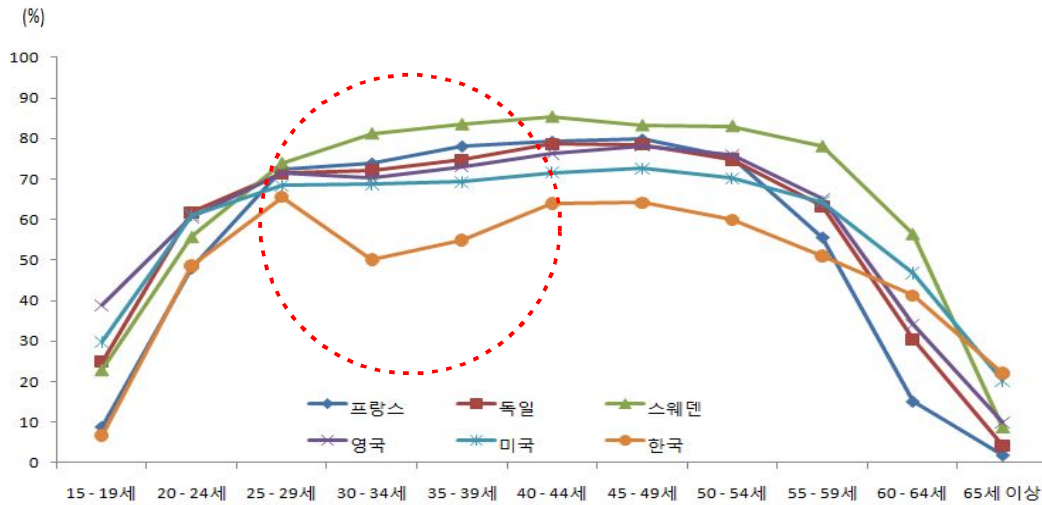
- 국내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는 30~40대를 최저점으로 하는 M자 커브 형태를 보임²⁾

1) OECD 고용률과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국 통계청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OECD와 한국 통계청의 지표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2) 만혼, 노산 등으로 M자 형 곡선의 최저점이 1990년대에는 25~29세였으나, 2000년대에 30~34세로 이동

- 결혼 연령기인 29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출산·육아기인 30~34세에 최저점으로 하락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나타냄
-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은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고용률이 유지되며 역U자 형태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 M자 형태인 우리와 차이를 보임

<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Labor Force Survey.
 주: 2009년 기준임.

- 특히, 고학력 여성의 장년층(35세 이상) 고용률이 청년층(20~34세)보다 저조하여 결혼·출산 후 고학력 여성의 사회 재진출이 어려움을 반영
- 35세 이상 고학력 장년 여성 고용률은 2006년 55.0%로 고학력 장년 남성의 91.7%에 크게 못미치며 전체 장년 여성의 평균 고용률 57.8%를 밑도는 수준임
- 35세 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낮은 고용률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 재진출이 저조함을 시사

< 성별 · 연령별 고학력자 고용률 비교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장년 (35세 이상)	남성	89.2	90.4	91.8	91.6	91.9	91.7
	여성	49.1	50.1	49.5	50.8	53.0	55.0
청년 (20~34세)	여성	62.4	62.9	61.9	64.3	63.7	65.6

자료: 대졸여성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파악과 정책과제, 김종숙 외(2008)

주: 고학력자는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자를 말함.

○ 출산·육아 이후 복귀하는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 남성의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중이 60세 이후 급증하는 반면, 여성은 30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남성은 고용이 안정되는 30대부터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중이 감소하나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오히려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성·연령계층·종사상의 지위별 임금근로자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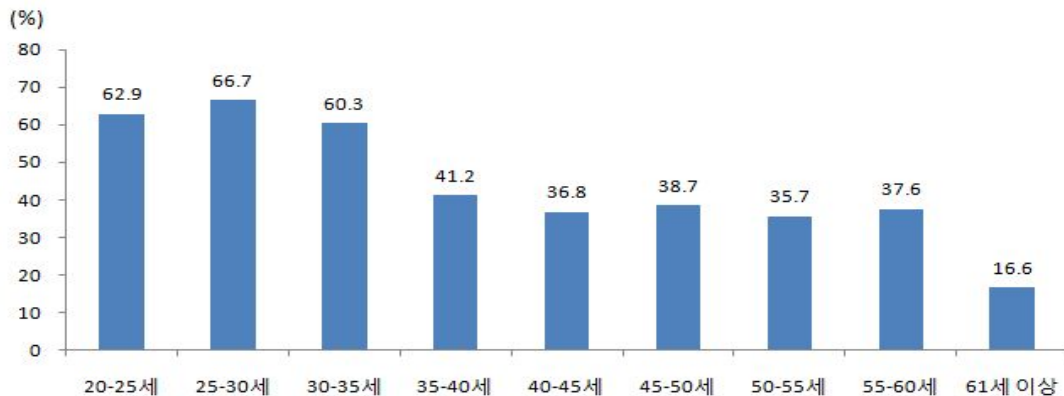
(단위: 천명, %)

	남성			여성		
	상용(비중)	임시 일용(비중)	합계	상용(비중)	임시 일용(비중)	합계
15 - 19세	4(5.2)	73(94.8)	77	9(9.3)	88(90.7)	97
20 - 29세	1,001(59.2)	690(40.8)	1,691	1,127(59.5)	769(40.6)	1,895
30 - 39세	2,195(72.5)	834(27.5)	3,029	937(53.6)	810(46.4)	1,747
40 - 49세	1,740(69.7)	754(30.2)	2,495	586(33.6)	1,157(66.4)	1,743
50 - 59세	916(63.2)	534(36.9)	1,449	255(26.6)	701(73.2)	957
60세 이상	197(33.0)	400(67.0)	597	40(9.3)	391(90.7)	431
합계	6,053(64.8)	3,285(35.2)	9,338	2,954(43.0)	3,916(57.0)	6,870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2009)
주: 2008년 기준임.

- 고학력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도 35세 이상부터 크게 줄어들며 지속적으로 감소
- 20~35세 이전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60%대를 보이나, 35세 이후 30~40%대로 낮아짐

< 연령별 고학력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 >



자료: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주: 고학력자는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자를 가리키며 2007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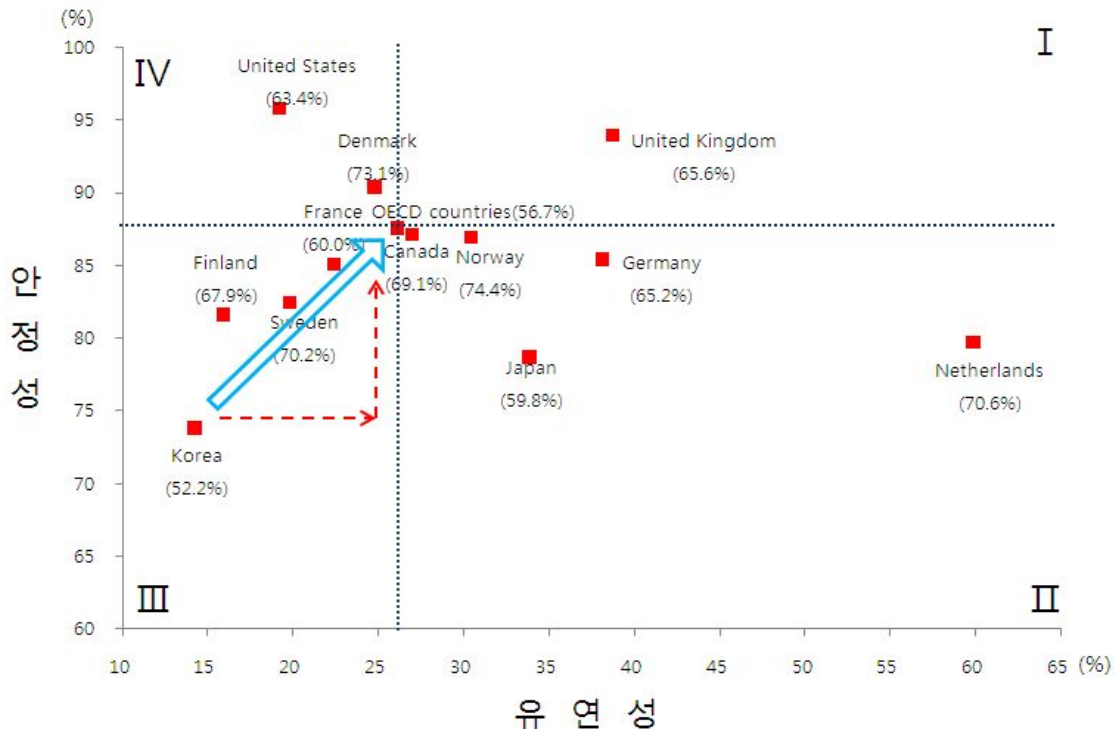
3. 여성 고용 증가를 위한 바람직한 경로

(1) 단계적 경로를 제안

○ OECD 주요국의 여성 고용의 유연·안정성 및 고용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연성, 안정성, 고용률 3가지 지표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남

-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유연성, 안정성, 고용률이 모두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3사분면 하단에 위치
- 미국과 덴마크는 유연성은 평균보다 낮지만 안정성과 고용률이 높은 4사분면에 위치함
- 영국의 경우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1사분면에 있고, 독일, 일본, 네덜란드는 유연성은 높지만 안정성은 평균보다 낮은 2사분면에 있음

< 세계 여성 경제활동 상황 비교 >



자료: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1: 유연성은 OECD 기준 파트타임 종사자의 비중, 안정성은 정규직 종사자의 비중, 괄호()는 여성 고용률을 나타냄.

주2: 미국의 안정성과 유연성 지표는 2005년, 고용률은 2009년이며 나머지는 2009년 기준임.

주3: 파트타임 종사자 비중은 여성 전체 피고용자, 정규직 비중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여성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계산.

- 풀타임과 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여성 고용률도 평균에 비해 높은 미국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OECD 국가의 평균점을 향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 고용률을 제고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함

○ 고용의 유연성, 안정성, 고용률이 모두 낮은 우리나라는 1단계로 유연성을 높여서 고용률을 제고하고, 2단계로 안정성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한 경로

- 우리나라는 1단계로 유연근로(피플잡)의 비중을 높여서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고, 2단계로 정규직(안정성)의 비중을 높여가는 단계적 경로가 바람직함
 - 여성 고용률이 낮고 임시직과 풀타임 근로 비중이 높은 한국이 단번에 파트타임-정규직이 많고 고용률도 높은 영국, 캐나다처럼 개선되기는 어려움
 - 이와 같은 단계적 경로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피플잡) 활성화, 보육서비스 확충, 남녀 간 형평의 제도화 등 단기
 - 장기 대책이 조화를 이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정책 과제

○ 과제1 : 여성의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가 공공부문에서 정착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대시켜야 함

- 지난 8월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되고 있는 유연근무제³⁾를 공공부문에서 정착시키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함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23개 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연근무제에 대해 참가자의 85%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76%가 근무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고 발표
 - 아울러, 근로계약 때 약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휴가를 주고 덜하면 초과근로를 시키는 이른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도 근로시간과 형태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어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고용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총무청(GSA), 인사관리처(OPM)을 중심으로 원격근무를 촉진하면서 연방공무원의 5%(102,900명)이 원격근무에 참여중이며, 영국은 국가공무원의 20%(10만명), 지방공무원의 50%(130만명) 이상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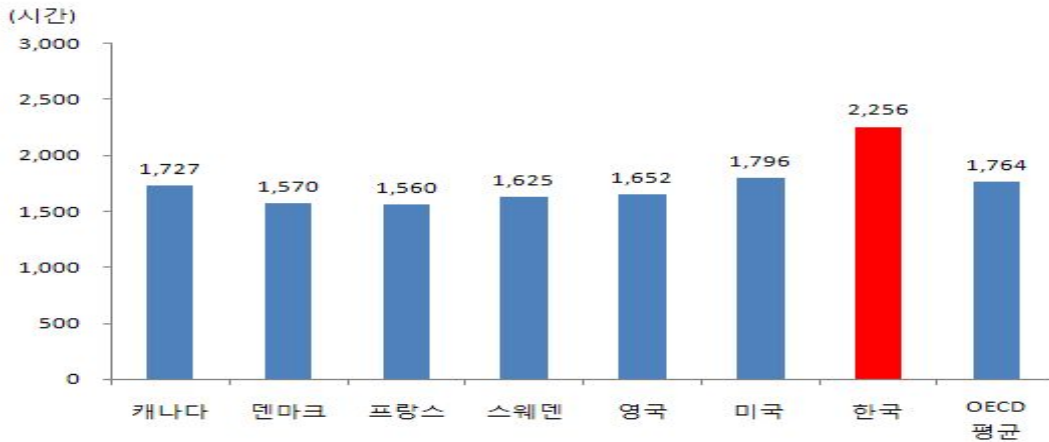
< 국내 유연근로제 도입 현황 >

구분	내 용
단시간 근로	주 30시간 미만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5.5%이나 한국은 9.8%('08) 수준
시차출근제	2008년 기준 일반기업 5.6%, 공공부문 2009년 12월 기준 3.46%
재택근무제	2008년 기준 일반기업 3.4%
기타	집중근로시간제 3.6%, 직무공유제 6.0%, 파트타임 전환제 3.8%

자료: 관계부처합동,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 국가고용전략회의, 2010.2.18.

- 국내 근로자의 높은 업무강도 및 남성 중심의 근무환경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선진국들이 2,000시간 미만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764 시간보다 높음

< OECD 주요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 비교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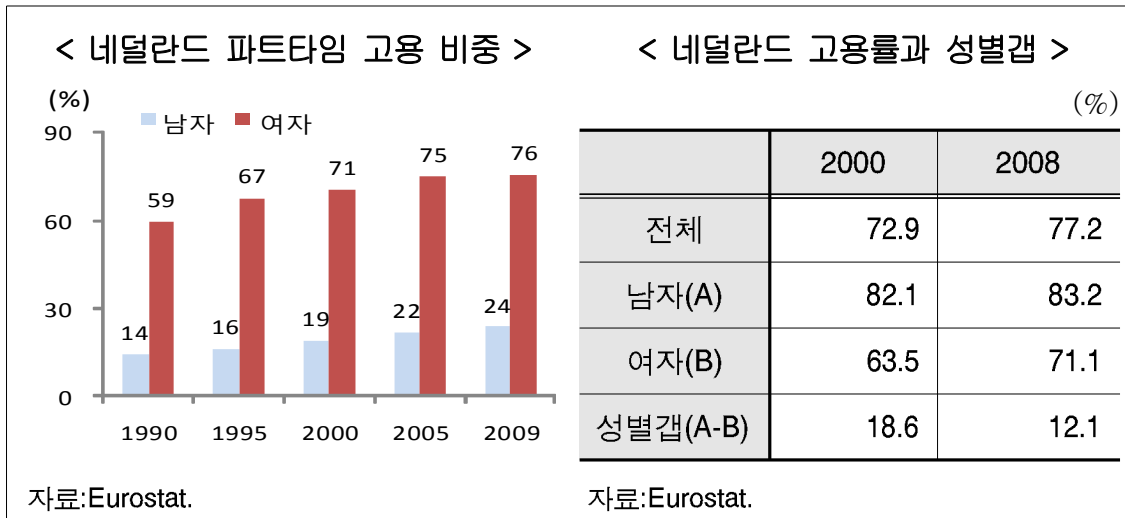
주: 2008년 기준임.

- 여성의 가사부담 및 육아의 역할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증대를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의 확대가 필요
- 현재 국내 유연근로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도입 및 시행이 미미한 수준임
- 양육 시기에 근로 시간을 줄여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 기혼여성들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킴

- 중장기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파트타임에 대한 노사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한계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파트타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 파트타임 일자리가 정규직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전망 하에 법제도를 개선
 - 스웨덴·덴마크·프랑스 등의 육아기 파트타임제, 일본의 '단시간 정사원 제도', 싱가포르의 공공부문 파트타임 고용제도 등이 성공 사례임

<사례 1> 네덜란드⁴⁾ : 파트타임 정규직 고용을 활용한 여성 경제활동 제고

-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고용 증가를 통해 여성의 노동력 참가를 확대
 -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근로문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억제하였으나, 파트타임 고용제의 확산으로 여성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짐
 - 네덜란드 여성 고용률은 **1980년 36.1%로 우리나라보다 낮았으나, 2009년 현재 73.5%로 한국보다 19.6%p 높은 수준으로 제고**
 - 1980년대 이후 총고용 증가의 60% 이상이 파트타임 고용이며, 이는 여성 일자리 증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증가한 여성 일자리의 70% 이상이 파트타임 일자리임
- 파트타임 일자리는 여성 근로자에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
 - 파트타임 고용의 비중은 1990년 31%에서 2009년 48%로 높아졌고, 특히 여성 파트타임 고용의 비중이 같은 기간 59%에서 76%로 17%p 높아짐
 - 여성 고용률 제고로 성별 고용갭도 2000년 18.6%에서 2008년 12.1%로 낮아짐
- 파트타임 중심의 여성 일자리 창출은 네덜란드에서 1.5모델을 발전시킴
 - 네덜란드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고 높은 보육비용 보전, 남성부양 중심의 보수적 가족 모델을 가구당 1인 전일제 주 40시간 ~~와~~ 1인 시간제 근무(주 30시간)가 융합된 생계 모형(1.5 모델)으로 발전시킴
 - 시간제 근로의 도입과 시간제 노동의 차별 철폐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나아가 남성은 전일제 중심의 '일과' 여성은 시간제로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킴



○ **과제2 : 출산 후 경력단절 현상 완화와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해 직장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필요**

- 영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가정보육사와 같은 공공서비스 확대가 시급함
- 유형별 보육시설 중 직장 보육시설의 만족도가 3.9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운영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맞아 떨어지는 직장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은 각각 370개, 1,917개로 설치가 미미한 실정
- 아이를 가정에서 돌봐주는 가정보육사 파견 서비스가 2008년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다양한 공공보육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육시설의 유형별 만족도 및 설치 현황 >

(단위: 점, 개)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만족도(5점 만점)	3.73	3.87	3.61	3.99
시설수	1,917	1,470	14,368	37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실태 조사(2009).

4) 네덜란드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소규모 개방경제로 1990년대 극적인 일자리 창출 증대를 통해 실업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고용 기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산업연구원(2004)

- 양육비 보조 정책도 저소득층 중심에서 만 5~6세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교육을 전면 무상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
 -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선진국들은 유치원 등 육아교육이 무상인 반면, 한국은 만 5세, 소득하위 20%미만 가구에게만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서비스의 제 공과 탁아서비스 지원시 취업 중인 여성을 우대하는 제도를 검토
 - 스웨덴, 핀란드 등 여성 고용률이 높은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신청이나 탁아서비스 신청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임

<사례 2> 덴마크: 영아를 위한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 덴마크는 생후 6개월 이후 영아를 위한 보육인프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보육시설 이용비율 및 공공재정지원 대상 아동수가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음
 - 덴마크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출산 이후 고용률이 크게 떨어져 (M자형 모델) 우리와 유사했으나, 워킹맘의 단시간 근로 비중이 늘어난 후 남녀 모두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모델로 개선됨
- 덴마크는 공공보육을 통한 고용 지속과 부모의 노동권 보장에 초점⁵⁾을 두고, 특히 영아보육에 집중 투자했으며 이를 기초로 남녀 모두 전일제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 1999년 현재 0-2세 영아의 64%, 3-5세 유아의 91%, 6-9세 취학아동의 75%가 보육시설 이용 중이며, 1970년대 20%였던 0-3세 보육 충족률이 2000년대 초 70%까지 상승하는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 여건이 현저히 개선됨

○ 과제 3 :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화

- 현재 성차별금지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 남녀 간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남녀 간 직종분리 현상이나 임금격차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근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음

5) 공보육의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고용률도 높아짐[OECD(2004), 김혜원 외(2007)에서 재인용]

- 캐나다 등 영미 자유주의국가들의 경우, 관련된 차별금지법을 활용하여 남녀 간 고용격차와 임금격차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함

<사례 3> 캐나다: 고용·임금의 차별금지 법제화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 제고

- 캐나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불평등 시정을 통해 여성의 고용여건과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고용률을 크게 제고
- 캐나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57.2%에서 2009년 74.4%로 여성 고용률도 '80년 52.5%에서 **2009년 69.1%로 대폭 높아짐**
- 캐나다는 1986년 고용형평법(EEA)과 임금형평법(PEA) 도입을 통해 채용, 승진, 능력개발, 처우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제도화
- 고용형평법은 노동시장 진입, 승진, 훈련 등과 관련된 차별 시정을 목적으로 했고, 임금형평법은 성별 직종분리에 따른 임금불평등의 시정을 목적으로 성불평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임금차별이 없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고용형평법 시행 하에서 여성 노동력 비율은 사기업이 1987년 40.9%에서 2004년 43.4%로 정부기관이 42.0%에서 53.5%로 증가함

< 고용형평법하의 여성 노동력 비율 >

(%)

	1987년	1999년	2004년
사기업, 공기업	40.9	44.8	43.4
연방정부기관	42.0	51.4	53.5
독립기관	-	-	55.1
기타 공공부문	-	-	18.0

자료: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김혜원 외(2007년)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조호정 (2072-6217, chjss@hri.co.kr)
 연구원 전선형 (2072-6214, shjeon@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미국	0.0	-4.0	-6.8	-2.6	-4.9	-0.7	1.6	5.0	3.3	3.7	1.5
유로 지역	0.6	-0.4	-1.9	-4.1	-2.5	-0.1	0.4	0.0	1.0	0.2	1.0
일본	-1.2	-5.4	-10.0	-5.2	-16.6	10.4	-1.0	-4.1	2.4	4.4	0.4
중국	9.6	9.0	6.8	8.7	6.2	7.9	9.1	10.7	10.5	11.9	10.3
한국	2.3	3.1	-3.4	0.2	-4.3	-2.2	1.0	6.0	5.3	8.1	7.2

주: 1)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7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8월27일	9월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2.64	2.62	-0.02%p
	엔/달러	90.76	96.65	92.93	85.46	84.27	-1.19¥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2752	1.2824	0.0072\$
	다우존스지수(p)	8,776	8,447	10,428	10,151	10,320	169p
	닛케이지수(p)	8,860	9,958	10,655	8,991	9,063	7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56	3.65	0.09%p
	원/달러(원)	1,259.5	1,273.9	1,164.5	1,196.6	1,175.1	-21.5원
	코스피지수(p)	1,124.5	1,390.1	1,682.8	1,729.6	1,780.0	50.4p

주: 9월 3일 해외지표는 전일(9월 2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8월27일	9월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75.23	75.00	-0.23\$
	Dubai	36.45	71.85	78.06	72.08	73.81	1.73\$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67.27	271.15	3.8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